



소중한 짝

최영호

1

6월의 눈부신 해빛이 초고층살림집들의 창가마다에 아롱거리는 려명거리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끝을 알수 없게 하늘높이 치솟은 70층, 55층짜리 아파트들도 눈뿌리를 뽑았지만 그밑에 넓게 뻗은 도로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특색있는 상업봉사망들이 소년단대표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남이는 그속에서 《려명거리종합상업구》라고 쓴 진록색바탕의 빨간색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았습니다. 어제저녁 자기네보다 한발 앞서 려명거리를 돌아본 다른 참관조의 아이들로부터 귀솔곳이 들어두었던 상점름이였습니다. 4층으로 된 덩실한 건물안에 큰 상점들만 해도 거의 열개나 되고 거기에 식당이며 약국, 사진관, 꽃방에다가 멋진 어린이놀이장까지 꾸려져있다는 이름그대로 종합적인 상업봉사망이라는 말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던것입니다.

광남이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때마침 휴식구령이 내렸습니다.

광남이는 옆에 서있는 승길이를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왜 그러니?》

고개를 잔뜩 뒤로 젖히고 하나, 둘 하며

70층짜리 아파트의 층수를 세여보고있던 승길이가 시답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광남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잊지 녀에 저희네 소년단반동무들에게 줄 기념품을 마련한다면서 려명거리종합상업구에 꼭 들러보자고 제편에서 먼저 약속을 걸어왔던 승길이였습니다.

《왜가 뭐야? 저길 좀 봐.》

광남이는 더 긴말을 앓고 종합상업구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들문옆에 《조선소년단 제 8차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큼직한 환영그림판까지 내다붙인 상점안으로 벌써 여러명의 소년단대표들이 찾아들고있었습니다.

《아차.》

승길이는 자기의 되박이마를 찰싹 쳐대며 멧적은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광남이는 픽 하고 소리없는 웃음을 웃고말았습니다. 유치원시절부터 어떤 한가지 일에 골똘하면 주위의 다른 일은 감감 잊어버리곤 하는 승길이의 남다른 습성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광남이였습니다. 글썽 언제인가는 구구표를 외우는데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길옆의 아름답드리나무를 들이받을번 한적도 있었으니까요. 하긴 그렇게 지긋은 성미와 남다른 열성으로 하여 광남이와 늘 1, 2등을 다투던 손꼽히는 최우등

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광남이는 한해전까지만 해도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승길이를 뜻밖에도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된것이 무척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승길이기도 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다가 멀리 외진 산골학교로 전학을 간 광남이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대표로 불쑥 나타난 것이 여간 반갑고 기쁘지 않은지 이렇게 짚만 있으면 곁에 붙어다니며 떨어질념을 안했습니다.

《자, 빨리 상점안에 들어가보자.》

《그래그래.》

부지런히 발걸음을 놀려 상점앞에 다달은 광남이와 승길이는 그 자리에 우뚝 굳어지고말았습니다. 은백색의 으리으리한 나들문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상점이라는 글발이 빛나고있었습니다.

《야!》

광남이와 승길이는 서로 약속이나 한듯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자기들이 찾은 상점이 아버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상점이라는 놀랍고도 가슴벅찬 사실에 마음이 마냥 설레었습니다. 꼭 석달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야, 소년단대회가 석달전에만 열렸으면 참 좋았겠지?》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우리도 여기서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올수 있었겠는데...》

광남이와 승길이는 너무도 아쉽고 서운해서 한숨까지 푹푹 내쉬다가 상점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려명거리 종합상업구는 정말 멋있고 회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성락원상점, 금강상점, 룡흥비단상점 등 이름부터가 멋스러운 상점들이 층층이 전개되어있고 정보기술교류소, 사진관, 꽃방, 약국 등 각종 봉사망들이 곳곳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상점안의 3층 넓은 홀에는 갖가지 유희기재들과 놀이감들이 차고넘치는 어린이놀이장까지 꾸려져 광남이의 동생 광철이나 승길이의 녀동생 승복이와 같은 유치원꼬마들이 좋아라고 뛰어놀고있었습니다.

상점안의 그 모든 광경을 흘린듯이 바라

보던 광남이가 그만에야 정신이 든듯 승길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쌍까풀진 큰 눈을 더부럭거리며 상점안의 여기저기를 휘둘러보던 승길이기도 재빨리 광남이와 눈길을 맞추었습니다.

《애, 구경은 그만하고 빨리 기념품부터 사는게 어때?》

《그래그래.》

승길이는 좀더 구경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으나 선선히 응했습니다. 려명거리참관도 행사로 맞물린 참관이니 언제 대렬모였구령이 내릴지 알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어선생님이 늘 외우는것처럼 재미난 놀음에 연필자루 썩는다고 구경만 하다가 소년단반애들에게 안겨줄 기념품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점문을 나서게 될수도 있었습니다.

승길이는 급기야 학용품매대를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광남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난 말이야, 우리 반동무들에게 멋진 고급수첩을 하나씩 안겨줄래. 수첩의 첫장에다가 〈평양기념으로 ○○○동무에게, 안승길 줌.〉, 이렇게 멋진 글까지 칩 써서 말이야. 어때?》

《흥, 멋지기도 하겠다. 〈안승길 줌.〉이 아니라 〈안승길 드림〉, 이렇게 써야 하는거야.》

《그래?...》

승길이는 뒤더수기를 굵적이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수첩에다가 기념글까지 써서 주면 더 좋을거야. 광남이, 넌?》

《나?...》

광남이는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광남이는 승길이처럼 수첩이나 원주필을 사려고 이곳에 온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건도에 있는 백화점이나 읍상점들에서도 얼마든지 살수 있었습니다. 광남이가 사려는것은 전혀 다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혀 다른 상품이 아직은 눈에 띄우지 않아 은근히 조바심이 나던차였습니다.

《승길아, 넌 먼저 가서 어서 수첩이랑 사. 난 옷층에 있는 상점까지 더 돌아보아야겠어.》

《도대체 무슨 기념품을 사려고 그러니?》

《그건 몰라도 돼.》

《쳇,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구. 그래 내가 알면 안되니? 쳇...》

승길이는 기분이 나쁠 때면 입에 올리곤 하는 군말을 두번세번 곱씹으며 아니꼬운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광남이는 그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길이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난 동무라고 것처럼 반가와하며 속생각까지 죄다 털어놓는데 자기는 금시 처음 보는 애처럼 싱싱싱 대했으니 그런 눈길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승길아, 됐어됐어. 사실 내가 사려는것은 말이야, 그건...》

광남이는 말허리를 끊고 주위를 빙 둘러보았습니다. 가까이에 다른 애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야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구두야!》

《뭘, 남자구두?...》

승길이의 큰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승길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응, 알만 해. 아버지에게 드릴 구두 말이지?...》

광남이는 더 설명을 앓고 웃춤으로 올라갔습니다.

승길이는 광남이가 여간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광남이는 자기 아버지를 무척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 존경심은 도에서 살 때나 멀리 산골군으로 이사를 가거나 변함이 없는듯 했습니다. 원래 도탐사관리국에서 일하던 광남이 아버지는 창평이라는 외진 산골군에 중요한 지하자원탐사를 위한 탐사대가 새로 조직되었을 때 그 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광남이는 아버지를 따라 외진 산골마을로 이사를 가면서도 학급동무들앞에서 아버지자랑을 한가득 늘어놓는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남이이니 이렇게 희한한 평양상점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기념품부터 마련하는것은 응당한 일이었습니다.

승길이는 학용품매대에서 수첩과 원주필을 사들기 바쁘게 광남이를 뒤쫓아 4층으로

달려올라갔습니다.

광남이가 미리 알고 올라갔는지는 알수 없으나 4층에는 정말로 각종 운동신들과 고급구두들을 판매하는 매봉산상점이라는 신발상점이 있었습니다. 승길이는 목을 길게 빼들고 상점안을 휘둘러보았습니다. 저쯤앞의 매대탁우에 여러 켈레의 남자구두를 올려놓고 무슨 노끈 같은것으로 매 신발의 길이를 재어보고있는 광남이의 모습이 눈에 안겨왔습니다. 승길이는 탁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운동화이든 구두이든 다 자기의 신발문수가 있는 법인데 소학교 4학년생이라는게 그런것도 모르고 유치원애들처럼 노끈으로 신발길이를 재고있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집이 흔들거렸던것입니다.

승길이는 광남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광남아, 신발은 그렇게 고르는게 아니야. 어서 아버지신발문수를 대라. 내가 제격 골라줄게.》

《...》

광남이는 불쑥 나타난 승길이앞에서 미처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 아버지구두문수를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긴 구두야 운동화처럼 늘 신고다니는게 아니니까 모를수 있지 뭐. 그럼 너의 아버지가 운동화를 몇문 신으시는지 그것만 말해. 그럼 구두문수는 제격 알수 있으니까.》

승길이는 삼촌이 구두공장에 다니는지라 제법 알은체를 했습니다.

《난 아버지의 구두를 사려는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구두를 사려고 해.》

《뭘, 선생님의 구두?...》

놀라움과 의혹에 차서 광남이를 바라보던 승길이가 그만에야 생각이 난듯 다우쳐 물었습니다.

《아참, 너의 선생님은 남자선생님이라고 했지.》

《그래.》

《무섭지 않니?...》

《무섭긴?...》

광남이는 승길이의 생똥같은 물음에 눈을 찔 흘리고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몰라. 글썄 집이 여기 평양인데 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학교로 자원해 오셨거던.»

《정말?... 아니, 여기 평양이 얼마나 좋게? 난 도제 이틀 있었는데도 막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훌륭하다는거지 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공부는 또 얼마나 잘 배워주시는지 아니? 군적으로도 소문난 모범... 응, 뭐라드라?... 그렇지, 10월8일모범교수자, 바로 10월8일모범교수자이거던.》

광남이의 입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자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야, 거 〈말이야〉 라는 말은 좀 빼고 말 하려마.》

《응, 그래.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아니... 우리 선생님은 말이지, 얼마나 멋쟁이 신지 아니? 여느때도 그렇지만 수업시간에는 꼭 체킨깃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구두도 반짝 반짝 닦아신고서야 교실에 들어오곤하신단다. 수업시간의 선생님의 모습은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면서 말이야. 이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멋쟁이선생님들이 됐단다. 그런데 글썄...》

신명나게 이야기를 퍼나가던 광남이가 갑자기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그러니?》

《그런데 글썄 그런 우리 선생님의 구두가 나때문에 못쓰게 됐단다.》

《어떻게 됐게?》

《급성충수염에 걸린 나를 업고 군병원까지 40리산길을 달리다가 바닥이 아예 판이 나고말았지 뭐.》

승길이는 그제야 깨도가 되는듯 했습니다. 광남이가 어째서 선생님의 신발문수도 못 알아가지고 대신 노끈으로 구두를 고르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승길이는 광남이를 위해 자기도 무엇인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불끈 치밀어올랐습니다.

《광남아, 팬찮아. 노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두를 고를수 있어. 나만 믿으라니까.》

《그런데 판매원누나가 우리 선생님구두는 특호구두래.》

《특호구두?... 세상에 그런 구두도 있다니?》

《응, 발이 특별히 큰 사람들이 따로 공장에 주문해서 만들어신는 구두래.》

《?...》

승길이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말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거리에 세워놓은 방송선전차에서 모엿구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곳곳에서 소년단대표들이 달려나오며 방송선전차를 중심으로 뿔을 맞추어서는 모습이 넓다란 창문으로 내려다보였습니다.

《승길아, 그만 내려가자. 이리다 모임시간 늦겠어.》

광남이는 제 먼저 계단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한 마음으로 계단을 두셋씩 뛰어넘던 광남이는 그만에야 비칠 몸균형을 잃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덤비던 나머지 발을 접지르고말았던것입니다. 뒤따라 내려오던 승길이가 다급히 부축하여주었지만 발목은 점점 더 걸지 못할 정도로 아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해치고 그중 낮시간이 길다는 6월이었지만 어느새 해는 지고 창밖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외의 어느 한 약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집무실에 돌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방에 들어서시기 바쁘게 탁상등부터 켜놓으시였습니다. 현지지도길에 계시느라 미처 보아주지 못한 밀린 문건들을 보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책상우에 쌓여있는 문건들가운데서 맨우에 놓인 문건을 집어드시였습니다. 교육부문 사업과 관련된 문건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 엷은 미소가 어리였습니다.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한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교육부문 사업과 관련된 문건들은 모든 문건들의 첫 순서에 놓도록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문건에는 최근시기 당의 새로운 교육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교육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자료들과 사회주의교육체제발표기념일을 맞으며 기념토론회, 방송야회와 같은 기념행사들을 진행하며 교육부문의 일부 공로있는 일군들과 교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내신하려 한다는 보고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시던 문건에서 시선을 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년초에 평양초등학교를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 떠오르시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행한 교육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교원들의 교육자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사회주의교육체제발표기념일을 맞으며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계획하고있는 일이 있는가고 언지시 물으시였습니다. 특별히 따로 계획한 일이 없다는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운하신 안색을 지으시였습니다.

《없단 말이지요. 난 그래도 위원장동무만은 좀 욕심을 낼줄 알았는데… 어느 날도 아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돛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 교육위원회에서 가만있어서야 안되지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한번 마음먹고 통이 크게 행사안을 짜보시오.》

《경애하는 원수님,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날 감격에 겨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던 교육위원회 책임일군의 모습을 그려보시고나서 다시금 문건에 시선을 박으시였습니다. 욕심을 내서 통이 크게 행사안을 짜보라고 하셨는데 어쩐지 기대하셨던바에는 이르지 못한듯 한 아쉬운 느낌이 드시였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받들어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온 나라의 모든 교원혁명가들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안겨주고싶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필통에서 중성필을 뽑아드시고 문건의 마지막부분에 쓰여진 《일부 공로있는 일군들과 교원들》, 《당 및 국가표창》이라는 글줄밑에 천천히 덧줄을 그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나들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한 일군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영범동무가 도착했습니다.》

《그렇소?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반갑게 응수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반고수머리를 시원스레 올려친 패기와 정열이 넘치는 삼십대 초엽의 젊은 일군이 방에 들어서며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이번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준비사업을 맡아보는 일군이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평양에 돌아오는 길로 우리 아이들 소식부터 먼저 듣고싶어서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소년단체표들

이 모두 평양에 올라왔습니까?)》

《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려해주신 특별열차를 타고 모두 평양에 무사히 도착해서 지금은 뜻깊은 평양참관의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내가 평양을 떠나있다가니 대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동무들이 역전에도 마중나가고 숙소도 돌아보도록 했는데 그 애들이 어디 불편해하는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정어린 사랑의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어 자그마한 불편도 모르고 잘 지내고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지 말고 아직 어린아이들인데 음식이랑 입에 맞아하는지 또 잠자리랑은 불편해하지 않는지 동무가 자주 숙소에 나가보고 미흡한 점이 없는가 관심을 돌려주시오.》

《경애하는 원수님, 알겠습니다.》

청년동맹 일군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을렸습니다. 사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마음을 쓰시고 기울이신 로고와 사랑은 참으로 다심하고 가슴뜨거운것이였습니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회의 규모와 형식이며 소년단대표들의 평양체류일정과 숙식조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구체적인 대책까지 일일이 다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거의 매일이다싶이 해당 부문 일군들을 몸가까이에 부르시어 대회준비정형에 대하여 물어주시였습니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던 청년동맹 일군이 문득 생각이 닿은듯 들고온 서류가방에서 문건 한부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건...》

문건을 받쳐드리려던 청년동맹 일군의 두손이 무뚝 굳어져버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집무탁우에 무드기 쌓여있는 문건들이 아프게 눈을 찔렀던것입니다.

《그건 뭘니까?》

《저... 이번에 올라온 소년단대표들이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자기들의 심

정을 적은 반영자료들입니다.》

《그렇소? 어디 봅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저이기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어서 보자고 하시였습니다. 청년동맹일군이 송구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헌헌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일없소. 아무리 문건이 많아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는 문건보다 더 반갑고 중요한 문건은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피두툼한 반영자료를 받아드시고 한장두장 갈피를 번지시였습니다. 떠나온 고향과 학교는 서로 달라도 하나같이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대표로 평양에 올라와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있는 자랑과 행복감이 글줄마다에 차고넘치는 반영자료들이였습니다.

사뭇 즐거우신 안색으로 갈피를 번져나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장의 반영자료에 눈길을 멈추시였습니다. 자강도 창평군의 어느 한 산골학교 소학생이 쓴 반영글이였습니다. 멀고 외진 산골군에서 온 나어린 소년단대표의 글이라는 사실에도 마음이 끌리셨지만 글의 내용이 또한 심중에 마쳐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박또박 정자로 박아쓴 반영글을 주의깊이 읽어내려가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과 자연박물관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우리 선생님도 아직은 가보지 못했다는 곳들이다. 그래서 인지 황홀하기 그지없는 어린이꿈관을 돌아보면서도, 기딱딱히게 재미난 물미끄럼대를 타고내리면서도 자꾸만 선생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우리 선생님도 우리 학교로 오지 않고 그냥 평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가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전국알아맞추기경연에까지 참가하여 도시아이들과 당당히 등수를 겨룰수 있었으며 공상가 학철이는 어떻게 전국소년과학환상문

예작품 및 모형전시회에 회한하고 멋진 과학환상그림을 내놓아 마을사람들을 깜짝 놀래울수 있었겠는가. 그뿐인가. 씨꿀새로 소문난 수연이는 또 어떻게 도예술학원 조기성악반에 편입되어 독창가수의 꿈을 펼쳐갈수 있었겠는가.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우리 산골마을 아이들도 아버지원수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것이라고!...

정말이지 우리 선생님은 우리모두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고마운 선생님이시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선생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라시는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자라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건을 내려놓으시고 청년동맹 일군에게로 고개를 돌리시었습니다.

《동문 이 반영글을 보고 뭐 생각되는것이 없소?》

《예. 자기를 배워주고 내세워준 선생님에 대한 남다른 존경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잠시 어둠이 짙어가는 창가를 바라보시었습니다.

언제인가 신문에서 읽으셨던 한건의 기사내용이 떠오르시었습니다. 우리 나라 서해안의 수백개 섬들중에서 물과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랫도분교에 자원진출하여 불과 다섯손가락안팎의 학생들을 위해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어느 한 녀성교원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미풍에 대하여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때 그 기사를 읽으시면서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세월을 외진 섬분교에서 후대교수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는 그 녀성교원의 순결한 애국심에 고개가 숙어지심을 어쩔수 없으시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랫도

분교의 녀성교원과 같은 훌륭한 교원혁명가들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있다는 가슴뿌듯한 사실에 마음이 후터워오르시었습니다.

이윽고 창가에서 시선을 거두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의 무아경속에서 자기자신도 때때로 잊는 때가 있다고 하오. 그런데 이제 겨우 열한살밖에 안되는 아이가 그런 황홀함과 즐거움의 무아경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선생님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며 선생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는것을 안타까워하고있으니 얼마나 기특하오.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자기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헤아릴줄 알고 기쁨을 함께 나눌줄 아는 우리 아이들의 웅심깊고 애바른 마음을 읽게 된것이 기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반영자료의 맨 마지막페이지까지 다 읽고나신 다음 청년동맹 일군에게 문건을 되돌려주시며 물으시었습니다.

《그래 이 반영자료말고 더 보고할것이 없습니까?》

《저...》

청년동맹 일군이 한동안을 바재이다가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년단대표들의 한조가 려명거리를 돌아보았는데 참관도중 한 아이가 발목을 다친 일이 있었습시다.》

《발목을?... 많이 다쳤습니까?》

《아닙니다.》

청년동맹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려명거리상점에서 광남이네가 당한 일을 사실그대로 말씀을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혼자소리로 나직이 뇌이시었습니다.

《설쳤구만, 설쳤어...》

《제 잘못이 큼니다.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헤덤비기 잘하는 애들인것만큼 인솔교원들이 좀더 관심을 돌리고 보살피도록 주의를 쫓아야 하는건데 제가 그만...》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요. 이번

에 올라온 소년단대표들중에 평양에 처음 와보는 애들이 적지 않은데 참관조직사업에서 설친 점이 있다 그 말이요. 그 애들이 평양에 와서 큰 상점들도 돌아보고 간단한 기념품들도 사고싶어하겠는데 동무들이 참관 일정을 행사처럼 맞물려놓았으니 어떻게 되었겠소. 이제부터라도 참관로정에 큰 상점이나 상업봉사장을 지나게 되면 애들이 마음놓고 구경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살수 있도록 널널하게 시간도 주고 조건도 보장해 줍시다.》

《경애하는 원수님, 알겠습니다.》

《그래 발목을 다쳤다는 그 애는 어디서 온 소년단대표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전히 흐리신 안색으로 물으시였습니다.

《예. 자강도 창평군에서 온 김광남이라는 소년단대표입니다.》

《창평군의 김광남이?... 가만, 좀전의 그 반영글을 쓴 애가 아니요? 자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남다른...》

《예, 옳습니다.》

《음, 그렇구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 심려의 빛이 어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너무 마음쓰지 말아 주십시오. 의사선생님들의 말이 뼈는 상하지 않고 조금 타박을 받았는데 얼마동안 고려치료를 하면서 안정을 하면 다른 일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얼마동안이라... 어련하겠지만 개막행사가 며칠 안 남은 조건에서 그 애가 사소한 불편이나 지장도 없이 다른 대표들과 똑같이 대회에 참가할수 있도록 집중치료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남달리 자기 선생님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한 애인데 그 애를 떠나보낸 담임선생의 마음도 남다를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수도 평양을 떠나 외진 산골학교로 자원해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운 고마운 선생님인데 그런 선생님의 마음까지 합쳐서 광남이를 빨리 완치시킵시다. 나도 해당 부문에 지시를 주겠습니다.》

《!...》

청년동맹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마디마디 새겨안으며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광남이가 꼭 제발로 걸어서 대회장에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광남이뿐아니라 모든 소년단대표들이 다 건강한 몸으로 대회에 참가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거듭거듭 꼭진히 이르시였습니다.

3

광남이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자기를 몸가까이 부르신다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대회휴식시간이 되기 바쁘게 어느 한 선생님을 따라 아버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앞에 이르러서는 살며시 자기의 손등을 꼬집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광남이는 방에 들어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옵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버지원수님!》하고 감격의 목소리를 터쳤습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몇몇 소년단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광남이를 반겨맞아주시었습니다.

《창평군의 소년단대표가 왔구만!》

광남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뜸 광남이의 발목부터 어루만지시며 아프지 않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광남이는 큰소리로 대답올렸습니다. 사실 광남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상한 발목때문에 몹시 걱정하시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게 되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다 나왔다고 씩씩하게 대답올려 원수님의 걱정부터 덜어드리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아프지 않다?... 그래두 아직은 그렇게 뛰여다니면 안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다심히 이르시고 나서 옆에 서있는 일군에게로 고개를 돌리시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동무, 이 애가 바로 일전에 내가 말하던 그 애입니다. 자기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지극하다는 애 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광남이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주시었습니다.

《광남인 이번에 최우등생의 자랑을 안고 대회에 참가했다지? 참 용해. 산골학교 학생이 전국알아맞추기경연에도 참가하고 또 이렇게 소년단체대회에도 참가하고!... 정말 용하거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손수 광남이의 등을 두드려주시었습니다. 광남이는 끝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세차게 들레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최우등생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는지 어디 광남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가?》

광남이는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디다. 그러던 광남이의 머리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것이 있었습니다. 산골학교로 전학을 와서 처음으로 맞다들린 수학시험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광남이는 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광남이 자기를 진짜최우등생으로 되게 한 그런 이야기였기때문이었습니다.

광남이는 고개를 수긋한채 한풀 접힌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사실 전 가짜최우등생이었습니다.》

《가짜최우등생?... 그건 무슨 소리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광남이의 동당지 않는 대답에 이렇게 되물으시었습니다.

《전 도에서 살다가 산골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 공부를 다 집어치웠습니다. 도1중

학교에도 못 가고 산골학교에나 다닐바에야 공부는 잘해서 뭘하겠는가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치는 수학시험을 되는 대로 쳤습니다.》

《허, 생각이 빼놓아졌됐구나. 그래서?...》

《그날 선생님은 내 학적부와 잘못 친 시험지를 앞에 놓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도에서 공부할 때가 다르고 산골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다른 그런 가짜최우등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입니다. 어디서 공부하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훌륭한 기동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진짜배기 최우등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 그때부터 광남이가 진짜 최우등생의 자랑을 높이 떨쳐갈수 있었겠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다시한번 광남이의 등을 두드려주시고나서 옆의 일군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확실히 수도 평양을 떠나 외진 산골학교로 자원해가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다릅니다. 광남이가 선생님에 대한 남다른 존경의 마음을 품을만 합니다.》

광남이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자기 선생님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계시는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원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는 선생님에 대하여 한가지라도 더 자랑하고싶은 생각이 산같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우리 선생님은 공부를 얼마나 잘 배워주는지 모릅니다. 10월8일모범교수자입니다. 나랑 아이들이 잘 모를것이 있어하면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고 또 누가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면 가깝든 멀든 꼭 집에까지 찾아와 그날 배운것은 그날로 가르쳐주군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남이의 입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자랑이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소조생들에게 줄 새로

나온 수학참고서들과 문제풀이집을 구하려고 읍에 있는 책방까지 왕복 80리 밤길을 갔다오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 온 마을사람들이 다 찾아나섰던적도 있습니다. 또 한번은 급성충수염에 걸린 나를 업고 군병원까지 달려갔다가 신었던 구두가 다 터져나가고 발이 험하게 갈라터져 따라갔던 동수랑 학철이랑 모두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정말이지 우리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광남이의 선생님 사랑을 다 들어주시고나서 숙연하신 어조로 나직이 뇌이시였습니다.

《음, 그래서 네가 려명거리상점의 4층에 까지 올라갔었구나, 선생님에게 드릴 구두를 마련하자고.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광남이 선생님의 모습도 훌륭히 안겨오셨지만 그런 선생님의 사랑에 끝이 없는 광남이가 더없이 대견스럽고 기특하시였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벌써부터 선생님의 수고를 생각할줄 알고 선생님을 위해 소박한 진정을 기울일줄 아는 그 애틋한 마음이 천길땅속의 보석처럼 값지고 소중하시였습니다. 아직은 작고 애어린 싹에 불과했지만 싹이 움트고 자라 조국을 위할줄 알고 나라를 받들줄 아는 참된 애국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광남이의 마음속에 움터난 그 소중하고 귀중한 싹을 더더욱 무성히 자래우고 활짝 꽃피우고싶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광남이를 몸가까이 끄당겨안으시였습니다.

《광남아, 너의 선생님의 구두는 내가 마련해주겠다. 고급구두뿐아니라 선생님이 언제나 환한 모습으로 너희들앞에 나설수 있게 고급옷감도 함께 마련해주마.》

(야, 고급구두! 고급옷감!…)

광남이는 하마트면 손벽까지 짜락 쳐떨번 했습니다.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광남이는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나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원수님께 말씀드리고픈 또 다른 소원이 입안에서 뱅뱅 맴돌며 저도 모르게 옆사람들에게로 눈길이 향해졌

습니다.

《허, 광남이가 하고싶은 이야기가 또 있는게로구나. 일없다. 어서 말해보아라.》

《저… 원수님, 우리 선생님 평양구경시켜주십시오. 새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에 랑 자연박물관에 랑 무척 가보고싶어했습니다.》

《허, 광남이가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정말 지극하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고나서 교육위원회 책임일군에게로 고개를 돌리시였습니다.

《위원장동무, 어떻습니까? 이런 광남이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이번 행사를 한번 통이 크게 조직해보지 않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있는 물으심에 교육위원회 책임일군이 대답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이 크게 조직하고 광남이 선생님과 같은 모범적인 교육자들을 평양에 불러 축하모임도 마련해주고 평양참관도 하도록 행사조직을 하겠습니다.》

《웁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교착해서 몇몇 선생님들만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섞인 어조로 응수하시였습니다.

《올해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체제를 발표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뜻깊은 날을 의의있게 기념하려고 해당 부문에 과업도 주고 준비도 해왔습니다. 나는 이날을 맞으며 광남이 선생님만이 아닌 온 나라의 모든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선생님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다가 큰 잔치를 차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대로 우리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영광과 행복의 절정우에 높이 내세워주겠습니다.》

광남이는 가슴이 세차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선생님을 불러 큰 잔치를 차려주시겠다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동무들도 자기와 같은 심정인지 서로 얼굴들을 마주보며 기쁨에 두눈을 반짝이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러한 광남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나는 오늘 자기 선생님을 남달리 위하는 광남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광남이 혼자만의 마음속에 움터난 단순한 존경의 감정이 아닙니다.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으로 훌륭히 키워주는 고마운 선생님에 대한 우리 시대 아이들의 진실한 신뢰의 마음, 높은 도덕의리심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의리심이 자라고자라 당과 수령을 받들줄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할 줄 아는 숭고한 도덕의리심으로 승화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움터나고있는 소중한 싹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조국을 사랑할 줄 알며 당을 받들 줄 아는 참다운 소년혁명가들로 자라나도록 그 싹을 품들여 자라우고 활짝 꽃피워주어야 합니다.》

위원장동무,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잘 조직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게, 온 나라가 들썩하게 기념사진도 찍고 성대한 축하모임과 연회도 마련해주며 높은 국가수훈과 함께 가슴이 아름지게 선물도 한 가득 안겨주잔 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휴계실장내를 둘러보시었습니다.

나이지숙한 교육일군의 얼굴에도, 청년동맹 일군의 얼굴에도 송엄한 빛이 어려있었습니다. 어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범적인 소년단체대표로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혁명학원 원아의 얼굴에도 또 삼지연군의 피끓는 소녀의 얼굴에도 한없는 걱정의 파도가 일렁이고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광남이도 크나큰 걱정에 휩싸여있었습니다.

광남이의 귀전에는 아버지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그냥 들려오는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움터나고있는 소중한 싹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조국을 사랑할 줄 알며 당을 받들 줄 아는 참다운 소년혁명가들

로 자라나도록 그 싹을 품들여 자라우고 활짝 꽃피워주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는 광남이었으나 마음은 마냥 뜨겁기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원수님은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마음속에 움터나는 자그마한 싹도 소중히 여기시고 따사로운 빛과 열로 무성하게 꽃피워주시는 따사로운 해님이셨습니다.

광남이는 그 따사로운 해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광남이는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자기 선생님만이 아닌 온 나라의 모든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선생님들에게로 달음박질쳐가고있었는지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

석달후였습니다.

수도 평양은 뜨거운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습니다.

전국의 모든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수백명의 교원들을 평양에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와 함께 은정어린 선물도 안겨주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도 베푸신 사랑이 적으신듯 뜻깊은 축하모임도 가지도록 하여주시고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축하속에 즐거운 평양체류의 나날도 이어가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온 세상이 부럽게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그들속에는 자강도의 외진 산골학교에서 온 광남이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아니, 광남이 선생님만이 아닌 온 나라 모든 선생님들의 밝은 모습이 다 어려있었습니다.